

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개선사항 및 개선계획

2015년 훈련 미비점 (개선할 사항)	2016년 개선된 사항 (2015 훈련 미비점 개선된 사항)	2016년 미비점 (2016 훈련 개선할 사항)
① 외부전문가 자문 미흡 ② 개인별 임무카드 구체적·실질적 작성 필요 ③ 토론훈련시 활발한 토론이 필요함 ④ 현장훈련시 의료반외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반 참여 미흡 ⑤ 훈련 가상상황에서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대입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음	① 재난전문가인 광진소방서 임남길 구조팀장, 건국대 성기원 교수 자문 실시 ② 개인별 임무카드 수정·보완 ③ 토론발표자를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대책반장인 과장급으로 실시했고, 각 대책반 팀장, 실무자를 배석시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 졌음 ④ 현장훈련시 현장통합지원본부 및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였으며, 13개 대책반원을 현장훈련에 참여시킴 ⑤ 다중밀집 대형화재 통합시나리오에 각 단계별(11개 단계)상황 마다 인명 및 건물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훈련 실시 함	① 좀 더 많은 많은 자문단 활용 - 2016 외부 전문가 2명에 도움을 받았으나 2017에는 폭넓은 자문단을 활용 ② 홍보실적이 우수하나 아쉬운점은 관내 지역내 유선방송(케이블) 홍보 필요 ③ 현장훈련시 통제인원을 좀더 총원하여 현장훈련을 통제 하여야 함 ④ 현장훈련시 재난상황 연출이 전년도에 비해 미흡하였음 시각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, 청각적인 효과를 줘 재난사항을 좀더 실감있게 연출할 필요가 있음 ⑤ 현장훈련시 소방서, 경찰서외 유관기관의 장비를 동원이 필요함 - 유관 기관 참여시 인원뿐만 아니라 장비도 동원하여 복구하는 장면의 연출의 필요하다고 봄

작성자 : 평가반 7급 나민숙
 평가반 7급 최건
 확인자 : 평가반장 6급 정원식

(서명)
 (서명)
 (서명)